

제2의 르네상스



글 · 홍창권
중앙대의료원장
(본회 협회지 편집위원)

인류역사에서 지난 천 년이 격변과 진보의 시간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세기를 마감하는 13세기 말부터 시작된 르네상스 운동은 인류를 신(神)중심 문화에서 이성과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인간중심의 문화로 발전시켰으며 그 결과 인류는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빠르고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리라 생각된다.

분명히 새 천년에 일어날 사회전반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특히 21세기는 그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원하는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낙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우리에게 긴박감과 긴장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들고 있으며, 우리의 사고와 관념의 변화를 끊임 없이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전 세계에 걸쳐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변화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발전하는 이 시대를 후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비록 인류역사가 다른 생명체에 비해 턱 없이 짧지만 끊임없는 사고와 투쟁으로 진보와 발전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생물체 진화과정에서 돌연변이로 획기적인 생물체가 탄생하듯이 인류역사에서도 어떤 전환점을 계기로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됨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13세기 말에 서양에서 시작된 르네상스 운동이 서구 문명을 발달시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듯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는 다음에 일어날 구도상의 그 어떤 큰 변화를 예고하고 태동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된다. 더욱이 과거의 르네상스 운동은 유럽이라는 국한된 지역에서 발생되었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전 세계에 걸쳐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변화이다. 그만큼 과거 르네상스 시대에 있었던 사회전반의 경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민간의료기관을 육성·발전시켜야만이 높은 의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제2의 르네상스로 여겨질 만큼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때 우리나라 의료계는 어떠한가?

19세기 후반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서양 의학이 도입된 이래 한 세기가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우리 의료수준이 이와 같이 발전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민간의료기관이 공헌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비중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실정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민간의료기관을 육성·발전시켜야만이 높은 의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앞으로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소득의 증대가 예견되는바 더욱 질 높은 의료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와 같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의료발전은 고사하고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의료공급을 하기에 도 힘든 실정이다.

20여 년 동안 낮은 의료보험 수가속에서도 현재와 같은 의료수준으로 발전시켜온 것

은 우수한 의료인력과 의료인들의 피나는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수한 의료인과 이들의 노력만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기에는 한계에 이른 느낌이 든다.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지금의 현상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으로는 새로운 시설투자는 고사하고 현상유지조차도 어렵기 때문이다.

훌륭한 의술은 훌륭한 의료인과 첨단장비에 의해 이루어진다

훌륭한 의술은 고전에 나오는 용한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훌륭한 의료인과 첨단장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민 모두가 제발 알아주었으면 한다. 최근 중소병원의 봉직의 뿐 아니라 많은 임상의학 교수들이 교수직을 버리고 개원을 하고 있다. 혹자는 그 이유를 의약분업으로 인한 정책방향이 개원의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나는 꼭 그렇지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탈 대학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보조나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연구나 교육보다는 환자진료에 더 치중하도록 강요하는 현실때문일 것이다. 국립대학병원에 비해 사립대학병원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이를 입

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의료수준은 낙후될 것이며 결국 이는 21세기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도 커다란 걸림돌로 등장할 것이다.

세계 제2차 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그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 최신 도서를 정부에서 구입하여 무료로 제공하였고, 의료시설을 위한 지원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투자가 현재의 세계 최고 의료수준의 일본을 만든 것이다.

이제 제2의 르네상스는 시작되었다. 국가와 국가간의 장벽이 없어진 세계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경쟁의 시대에 의료분야 역시 예외란 있을 수 없다. 무한경쟁의 이 시대에 살아남고 향후 우리 후손들이 의료 중속국이라는 오명을 덮어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료인, 그리고 모든 국민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²⁰⁰